

MAY PEACE FESTIVAL

5월 평화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ACC)이 평화의 축제로 물든다. 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5월에는 민주, 인권, 평화의 오월 정신을 기리는 'MAY PEACE FESTIVAL'을 개최한다.

'오월의 평화'를 주제로 전시, 공연,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정신을 계승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안녕! 민주주의', '열흘간의 나비떼 전시', '5·16, 미디어월' 등 전시와 '나는 광주에 없었다', '대동해원(大同解冤)' 등 공연 뿐 아니라 포럼, 교육,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먼저 옛 전남도청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현재 모습 그대로 공개한다. 80년 5월 열을 동안 이어진 항쟁의 기록을 예술로 형상화한 '열흘간의 나비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작품을 보다 보면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는 옛 도청별관에서 ACC-5·18기록관 공동기획 전시인 '전남도청: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기억'이 이어진다. 100년이 넘는 시간,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이곳을 '도청'으로 기억하는지에 대한 기록적 고찰이다.

지난 4월부터 북관 5관에서 6월 6일까지 진행되는 민주인권 평화 특별기획 사진전 '안녕! 민주주의'도 빼놓을 수 없는 전시다. 한국전쟁부터 촛불혁명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평화의 여정을 사진을 통해 조명한다.

5·18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를 위한 연극도 눈길을 끈다. 4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고선용 연출의 '나는 광주에 없었다'(극장1)는 관객 스스로 작품에 참여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이다.

세계 최고의 베토벤 전문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비nder의 '루돌프 부흐비nder 피아노 리사이틀'은 8일 극장2에서 열린다. 세계 최고 베토벤 전문가로 알려진 음악가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16일에는 '미디어월 파포먼스 빛'(미디어월)이 예정돼 있다. 80년 광주의 한반도에 설치된 미디어월에서 정시형 작가가 광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18일 극장1에서는 5·18민주화운동39주년 기념 전통예술 공



광주 5·18을 모티브로 지난 2017년 5월에 설치된 '열흘간의 나비떼' 전시 장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개방 등 민주·인권 담은 전시·공연·포럼 다채 5·18 겪지 않은 세대 위한 연극 눈길

연 '대동해원(大同解冤)'이 펼쳐진다. 오월이 품은 대동정신을 상상와 화합의 시대로 도약하자는 의미의 전통 예술 공연이다.

18일과 19일 양이틀간은 '빅도어 시네마'(예술극장 야외무대)가 펼쳐진다. 18일에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페스티벌의 2019년 개막공연 실황을, 19일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공연의 실황 영상을 상영한다.

26일과 29일에는 극장2에서 각각 '3·1운동 100주년 기념 오월음악회', 브런치콘서트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북한가곡, 평화의 노래가 되다'가 진행된다. 전자는 독립을 염원하던 선조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으며, 후자는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소프라노 민은홍, 테너 민현기가 남한과 북한의 가곡을 함께 부르는 평화콘서트다.

공동학술 교류 포럼도 예정돼 있다. 5·18 39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ACC 컨퍼런스홀)를 주제로 아시아의 기억과 기념의 현재를 돌아본다.

26일은 제25회 광주국제교류의 날로 정하고 5·18광장 및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글로벌 문화축제를 연다. 광주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음식, 이국적인 공연, 전통문화와 놀이를 즐기는 시간이다.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다. 7일부터 31일까지 옛 도청회의실에서 펼쳐지는 '놀러가는 기념관-오월스토리 퍼즐'은 5·18 당시 광주 지도를 퍼즐로 완성하며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5월 한달 기간에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은 웹툰 공모전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도 진행된다.

한편 1일과 6일은 정상 개관하며 7일에 휴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참고.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냥' 5월호



역사교훈여행 '다크 투어리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의 5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5월호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을 주제로 다뤘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우리말로 '역사교훈여행'이다.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 역사 현장이나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DMZ(비무장지대)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주 4·3 평화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여순사건 유적지 등을 돌아보며 빼어난 현대사의 생생한 흔적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예향 초대석은 '얼굴학자'로 알려진 조용진 한국형질문화원 원장(미술해부학 박사·전 서울고대 교수)을 만나본다. 조 원장은 40여 년간 '얼굴'을 통해 한국인의 기원과 유전학적 특성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왔다. 최근 '한국인의 얼굴·몸·뇌·문화'를 펴낸 그를 만나 한국인의 형질(形質) 문화에 대해 들었다.

봄바람 살랑이는 계절, '신남도택리지'는 나비축제 하나로 전국의 나들이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 함평으로 떠난다.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함평나비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과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 손불면 궁산리 바닷가에서 즐기는 해수찜질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함평으로 안내한다.

5월 한 달 동안 남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도 소개한다. 전국 대표축제로 꼽히는 함평 나비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 어린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고흥 우주항공축제, 장미향이 가득한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이 볼 여행객들을 맞는다.

'해의 문화 현장'에서는 전 세계 미술애호가들의 인생미술관으로 꼽히는 내셔널 갤러리의 매력을 들여다 봤다. 런던 트리플 갤러리에 자리한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는 고전미술이 많은 미술관 가운데 하나다. 컬렉션으로는 영국박물관이나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코너는 소소해서 더 예쁜 담양의 문화 공간들로 안내하고, '문화이 숨쉬는 문학관'은 한국 근대 풍자문학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채만식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군산 채만식문학관으로 향했다.

이외에 KIA타이거즈의 필승맨으로 변신한 고졸 2년차 투수 하준영을 만나보고, "버닝썬 스캔들은 예정된 참사였다"고 이야기하는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인성 교육 부재 아이들 육성 시스템'을 들여다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남도 원로 3인의 60년 예술혼 고흥 남포미술관 기획전 6월19일까지

'일숙미로 그려낸 남도풍경'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이 섬 없는 열정으로 예술혼을 불태우며 60여 년을 묵묵히 작업에 천착해 온 남도 서양화단의 세 작가를 초청해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6월 19일까지 '반세기기를 넘어선 화업인생-남도 원로 3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가 이기월, 임병기, 송성남 작가를 초대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작가들의 땀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터전인 아름다운 남도 풍경과 남도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것들로 모두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무등이 보이는 풍경', '향촌의 추색', '부뚜막 아낙들', '팔영골 추경' 등 세명의 작가가 풀어놓은 작품 세계는 고향, 어린 시절, 시골 풍경 등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림들이다. 탄탄한 기

본기와 오랜 화업을 통해 구축해온 각자만의 개성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작은 1970년대 작품부터 근작까지 함께 전시해 각 작가의 작품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기월 작가는 광주시와 전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4회의 개인전과 광주 비엔날레 특별 초대전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병기 작가는 전남도전·광주시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3회의 개인전과 광주 비엔날레 특별 초대전 등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과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프랑스 르싸롱전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송성남 작가는 고흥 출신으로, 6회의 개인전과 '프랑스 르싸



이기월 작 '무등이 보이는 풍경'

몽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현재 전남도전 초대작가, 한국미술공모대상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061-832-00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특허공법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중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실 무료이용권 2대 레스토랑 이용권 1대 휘트니스 이용권 4대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